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6/30℃ 목포 15/26℃ 여수 18/2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79호 1판 2010년 5월 21일 금요일

단기 4343년 (음력 4월 8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천안함, 북한 중어뢰에 침몰"

## 조사결과 발표 오늘 국가안보회의…대북 제재방안 논의

관련기사 2·3·4·5·9면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방안 등을 논의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저에서 수거한 파편자료와 군이 확보한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특히 "지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에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소개 책자에 소개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서 '1번'이라는 한글표기를 발견했으며, 이는 우리가 확보한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합조단은 컴퓨터를 이용한 폭발유형 시뮬레이션 결과,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최종 결론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공개된 북한 어뢰 잔해를 내·외신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단장은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령도 해안 초병이 천안함 폭발 당시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버블제트) 현상과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할 때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며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이와 관련,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21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 워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을 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네번째다.

NSC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선택 6·2 지방선거 D-12

# 공식유세 첫날부터 '안보' 격돌

## 여 "북 범죄행위 초당적 대응을"

## 야 "안보무능 내각 총사퇴 해야"

6.2 지방선거가 20일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북풍'의 향배가 선거판을 가를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우선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사태를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민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경기 수원역 앞 지원유세에서 "천안함 사건은 대청해전과 연평해전의 연장이 아닌 북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사죄해야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수도권 단일후보 공동 출정식을 갖고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북풍'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의 공격에 의해, 그것도 안방에서 당한 그런 안보무능에 대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들도 이날 오후 광주공원에서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광주지역 국회의원, 지지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도 광주·전남에서 각각 출정식과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을 갖고 첫 거리 유세를 시작하는 등 표심을 자극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지역별로 연대해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南에 검열단 파견 하겠다 제재땐 전쟁도 불사할 것"

## 북한 국방위원회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남한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시작된 지 30분만인 10시30분께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도발 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어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인 전국가적인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알 림

제19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일 시 : 2010년 5월 30일(일) 오전 10시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팀 구 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참가신청 : 5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참 가 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시 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시 상 식 : 6월4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일보 16층

주최 : 光州日報社 후원 : 광주시바둑협회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